‘현충시설’ 범어사, 호국불교 정신 잇다

10월 23일, ‘2023 팔관회’서 기념식 · 위령재

서울현충원 국립묘지 설치 전
수년간 전몰군경 위패 봉안해
군 · 경 관계자도 참석해 축하
11월 11일 참전용사 영면기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가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돼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부산불교연합회가 주관하는 ‘2023 호국영령위령재’에서 열린 현충시설 지정 인증서 전달식을 통해 범어사와 부산불교는 국가와 민족 수호를 위해 노력한 호국불교의 정신을 인정받게 됐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보운)는 10월 23일 범어사에서 ‘팔관회 호국영령위령재’를 봉행하고 현충시설 지정 인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보운 스님(범어사 주지)을 비롯해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천태종 삼광사 주지), 상임부회장 현강 정사(진각종 부산교구청장), 마나 스님(태고종 부산종무원장) 등 연합회 소속 스님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전종호 부산지방보훈청장, 강관범 육군 제53보병사단장 등 내빈과 해군작전사령부,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남해지방해양경찰청등 군 · 경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호국영령위령재는 △국민의례 △애국가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도위패 이운 △육법공양 △헌화 △발원문 △현충시설 지정 인증서 전달 △인사말 △봉행사 △추모사 △축원 △추모의 노래 △호국영령위령재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불교연합회장 보운 스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사한 과거 모든 역사의 수많은 무명용사들 영전에 추모의 향을 사른다”며 “숱한 역사의 굴곡 속에서 한국불교는 굳건히 민족정신을 이어왔다. 서울 현충원 국립묘지가 설치되기 전까지 범어사는 수년간 전몰군경의 위패를 봉안하고 넋을 위로하며 임시 국립현충원 역할을 담당했다. 범어사뿐 아니라 불교는 호국영령 위령재를 봉행해 전몰장병에 대한 추모의 뜻을 모으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종호 부산지방보훈청장, 강관범 육군 53보병사단장, 주성규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장이 추모사를 통해 현충시설 지정에 대한 의미를 전했으며 호국영령의 영면을 발원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이자 범어사 주지인 보운 스님과 전종호 부산지방보훈청장이 현충시설 지정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범어사는 국립현충원의 시원(始原)으로 전사자를 위한 추모 위령재를 봉행하고 야전병원의 역할을 담당했다. 아울러 ‘순국 전몰장병 영현 안치소’를 설치해 국립현충원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10월 21부터 23일까지 범어사 일원에서 ‘2023 팔관회’를 봉행했다. 21일에는 선재동자문화전승단 수계법회와 영유아 마정수기 법회가 각각 봉행됐으며, 22일에는 호국기원법회가 봉행됐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호국기원법회에 이어 ‘백희가무’를 진행해 김영환 장군의 이야기를 주제로 특별공연을 펼쳤다. 김영환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보호하기 위해 해인사 폭격명령을 거부했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팔관재계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팔관재계 수계법회에는 참여자들이 고려시대 복식을 입고 법회를 재현해 의미를 더했다.

이외에도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9월 10일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에서 ‘팔관회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팔관회의 가치를 알려왔다. 본행사에 이어 팔관회는 11월 11일 오전 11시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에 동참한다. 부산 전 지역 사찰은 이날 추모의 의미를 담아 범종을 11회 타종하고 참전용사들의 영면을 기원할 예정이다.

“자장율사 창건 정신, 면면이 이어져”

통도사 개산 1378주년 맞아
자장율사 영고재 · 기념식
영축장학금 32명 2680만원
지역발전 공로자 등 시상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10월 23일 개산조당과 설법전에서 개산 1378주년 개산대재를 기념하는 ‘개산조 자장율사 영고재 및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증명으로 열린 영고재 및 법요식에는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해 김명신 통도사 신도회장, 나동연 양산시장, 윤영석 국회의원, 이종희 양산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불자들이 동참했다.

법요식에선 자장율사의 행장이 소개됐으며, 봉행사 및 내빈 축사 등을 통한 개산대재의 의미를 전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또한 매현 박순하 작가가 서예 작품을 통도사성보박물관에 기증한 공로를 치하하는 기증패 전달식이 진행됐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10월 23일 개산조당과 설법전에서 봉행한 자장율사 영고재 및 개산대재 법요식.

아울러 통도사는 ‘영축장학금’을 마련해 박사 3명, 석사 6명 등 총 스님 32명에게 2680만원을 전달했다.

통도사 및 지역 발전 공로자를 위한 시상도 이어졌다. 공로자로는 백진재 양산시 문화관광과장, 조국래 양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소민 양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계 정보관, 노승우 양산소방서 소방교직원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10월 7일 열린 ‘제2회 초중고 사생실기대회’ 대상 수상자인 이하영(신주중1) 학생의 시상식도 열렸다. 지난 사생실기대회에는 전국에서 406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총 119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통도사 대중 스님들의 사진전 ‘나도작가다’ 대상은 선원 대중 자성 스님이, 통도사승가대학 학인 서예전 대상은 사교반 종선 스님이 받았다.

주지 현덕 스님은 “개산이란 산문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과거의 정신을 다시금 일깨운다는 뜻이며, 중생이 지나고 있는 불성을 깨달음에 다다르게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산대재가 자장율사의 창건 정신과 가르침을 계승해 천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이룩한 사찰의 법통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불자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불교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고재 및 법요식에 앞서 ‘영축삼보이운 및 괘불 점안식’, 사진전 ‘나도 작가다’, ‘서예전’ 등 다채로운 전시가 진행됐으며, 향토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기획된 드론쇼 ‘마음의 불씨를 띄우다’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탱 특별전’이 개막했다. 부도전에서는 부도헌다례가 봉행되는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이어졌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어르신들 노후 책임질 불사 ‘첫 발’

행복선원, 복지센터 건립 기원
금강경 1000일 기도 불사 입재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아우르는 노인 종합사회복지센터의 건립을 기원하는 천일기도가 입재했다.

부산 행복선원(주지 윤광)은 10월 22일 행복선원 법당에서 노인종합복지센터의 건립을 기원하는 금강경 1000일 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입재식은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영천 은해사 조실 법타 대종사 초청법회로 진행됐다. 행사는 ‘춤추는 스님’ 하유 스님의 법고의식을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법문 △현판식 △주지스님 인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법타 대종사는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글자는 5149자다. 글자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 금강경을 완성시키는 것은 대단히 큰 불사이자 참여한 여러분은 큰 복과 공덕을 짓는 것”이라며 “눈에 보이는 일체의 것은 허망한 것이니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근본을 생각하고 근본을 깨달으라는 금강경 가르침을 받들어 기도하는 동안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져 정진하시라”고 법문했다.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기원하는 1000일 기도 동참자의 발원을 담아 금강경 벽면 현판 제막을 하는 모습.

이어 법회에 참여한 사부대중은 오색실을 잡고 불 · 법 · 승 구호를 함께 외쳤으며, 현판식을 통해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길 기원했다.

행복선원 주지 윤광 스님은 “요즘은 가족이 있어도 마지막엔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방치하거나 학대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건 아니다 싶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어르신을 챙겨보자는 취지에 불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행복선원은 5년 전부터 요양보호사 7명을 배출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다. 하루 360원만 절약하면 불사에 동참할 수 있다.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즐기실 수 있게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금강경 1000일 기도는 매일 사시예불 때 금강경을 독송하며 100일 때마다 작은 회향의식을 가질 예정이다. 하루 360원의 기도비로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불사에 동참할 수 있으며 동참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금강경 한 글자를 새겨 법당 벽면에 올릴 수 있게 된다. 요양원, 주간보호센터와 노인공동생활가정을 가진 노인종합복지센터는 행복선원이 있는 부산 북구 내에 건립될 예정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제33회 산해원 문화상’ 후보자 공모

창원불교연합회 주최, 11월 10일 접수 마감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회장 법안)가 제33회 향기로운 산해원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접수한다.

산해원 문화상은 향토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예술, 언론인, 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창원불교연합회가 1991년 제정했다.

시상은 문학상, 예술상, 언론 · 학술상, 행원상(지역개발), 특별상(한마음 봉사상) 부문이며, 후보자 자격은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고 해당 분야 20년 이상의 전문 활동경력을 가진 문화예술인, 언론 및 학계 인사, 자원봉사자 등이다. 해당 연도의 활동이 현저한 사람을 우선 선정하며 후보자 개인의 종교와는 무관하게 심사한다.

수상자에게는 창작지원금 7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고 시상식은 12월 4일 오후 6시 30분 창원 성주사 설법전에서 개최된다. 후보자 추천은 오는 11월 10일까지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불교연합회 사무처(010-5246-2112)로 하면 된다.

지난해 제32회 시상식에서는 문학상 이달균 경상남도문인협회장, 예술상 박금숙 경남서예단체총연합회장, 언론상 장원일 MBC경남 사업센터장, 한마음 특별공로상 故박수철 창원시불교연합회 사무총장이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5회 동국문화예술회전 초대전 개막

범어사 성보박물관, 청원 스님 작품 등 30여 점 전시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환응)이 10월 24일 박물관 2층 기획전시관에서 ‘제5회 동국문화예술회전’ 개막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전시는 박물관 증축 이전 후 첫 초대전으로 불교미술의 발전과 미래 인재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범어사는 이날 불교미술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소장 유물 도록 〈범어사의 불화〉 60권을 증정했다.

개막식에는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과 관장 환응 스님, 통도사 박물관장 송천 스님을 비롯해 범어사 국장스님들과 이영경 동국대 WISE 캠퍼스 총장, 정병국 동국대 교수, 조해종 교수, 최유현 국가무형문화재 자수장, 이현주 부관장, 김선기 초대작가, 오기웅 초대작가, 최무상 동국문화예술회 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관장 환응 스님은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불교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불교



문화재의 참된 가치와 아름다움을 향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동국문화회전은 이런 노력의 일환에서 시작된 것으로 우리 박물관이 개관한 이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초대전이라는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초대전은 부산시 무형문화재 목조각장 청원 스님의 ‘사자상 · 코끼리상(목재)’과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송천 스님의 작품 ‘국가무형문화재 80호 자수장(견본채색)’,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불화장 김종섭의 ‘옴 오백나한도(견본 · 선화)’ 등 3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는 11월 5일까지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동참”

부산포교사단, 열암곡 마애불 바로세우기 기도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이 10월 21일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친견하고 기도정진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재린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장을 비롯해 포교사 및 불자 50여 명이 함께했다.〈사진〉

송재린 단장은 “마애불 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불교의 중흥과 미래 천년을 위한 원력 사업”이라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집행부를 구성해 진행하는 ‘열암곡 마애불 바로세우기’에 종도로서 힘을 보태 앞으로도 기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제37대 집행부가 추진



하는 ‘천년을 세우다’의 종책 사업 가운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는 핵심 사업이다. 미래본부는 지난 4월 입재 천일기도와 더불어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다라니 108독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여성장애인 가족나들이 지원

부산장애인복지관, ‘가족과 함께 롤린롤린’ 개최

사회복지법인 내원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희)이 10월 22일 해인사 일원에서 여성장애인 가족나들이 ‘가족과 함께 롤린롤린’을 개최했다.〈사진〉

사단법인 미소원 청년회가 함께 후원하고 봉사한 이번 가족 나들이에는 11가정 22명과 미소원 청년회 회원 10여 명이 동참했다. 아울러 이날 미소원 청년회는 장애인 가족나들이 후원금 300만원을 지원했다. 후원금은 미소원 청년회가 주최한 ‘이웃돕기 성금 마련 미청맛집’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이다.

류강열 미소원 청년회장은 “평소 나



들이의 기회가 없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분들과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 할 수 있어 기뻤다”며 “법보종찰 해인사와 가야산의 단풍이 함께 어우러진 신사에서 마음의 힐링을 함께 얻었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